

데스크 시각



박 성 천
편집국 부국장·문화부장

이제는 고전적인 명제가 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독일의 실존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상정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언어는 존재를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의미일 수 있겠다.

얼마 전 ‘광주 정신’의 근거인 ‘5월 정신’을 흐드는, 존재의 근거를 의심케 하는 일이 있었다. 옛 전남도청 본관 등 5·18 관련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분리 외에도 ‘옛 전남도청’의 명칭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문화계 인사들이나 5·18을 겪은 시민들은 대체로 “뜬금없다”, “살마 그릴 리가 있겠어”라는 냉소와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ACC서 옛 도청 분리, 있어선 안돼

ACC에서 민평의 분리 및 명칭 변경 시도가 추진된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전일빌딩 245에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협의회) 주최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협회의는 문제부 산하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추진단),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정부와 광주시, 민간이 참여하는 터라 형식상 구색은 갖춘 것으로 비쳐진다.

은펜칼럼



임 명 재
약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우리들의 삶과 대한 민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열심히 국정을 운영하고 각종 현안에 직접 참석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은 참으로 든든하기까지 하다. 그동안의 대통령은 형식으로 행사에 참석할 뿐 주로 장관이나 고위공무원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중요한 국정철학에 관련된 현안들은 직접 참석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통치 스타일이라 믿는다.

대통령은 부동산에 간혀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시키는데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 같다.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부정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면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당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 뉴스에 의하면 국제정상은 특별한 조직을 동원해서 이러한 주식 관련된 범법자들에게 세금 도둑질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주식시장이 OECD가 입국에 걸맞지 않고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

기 고



류 진 창
㈜와이드프럼 회장·수필가

프로야구는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되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프로야구는 1980년도의 암울했던 시기에 태동하여 우리 민초와 함께 울고 웃는 애환을 같이하며 성장해 왔다. 선수들은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가슴에 매인 한을 우상으로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해대 시절 어려운 재정과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무려 4년 연속 우승으로 팬들에게 보답하였는가 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43년 역사에 사상 첫 12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전통 강호 팀의 면모를 보였다. 기아 타이거즈의 실력은 자타가 인정하는 프로야구 명가로서 다른 팀들이 불기를 두려워하는 무등산 호랑이 기아가 되었다.

팬들이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손뼉 치며 응원했던 우

누구를 위하여 ‘옛 전남도청’ 명칭을 바꾸나

문제는 지난해 문제부가 발주한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전시관 등) 조직 구성·운영 방안 기본 연구(용역)’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주 내용은 사실상 민평의 분리에 방점이 놓여 있다. 용역안에는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문제부가 담당할 시·군·단점과 정부부서 보조기관, 정부부서 소속기관, 특수법인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내용을 담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운영 방식과 주체를 문제부 소관 1차 소속 기관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최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뜻밖에도 오월단체는 민평을 ACC에서 분리,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월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공후 5·18부상자회 총무국장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일환에서 옛 전남도청이 문제부 소속이 됐으나 옛 전남도청은 5·18최후 항쟁지로서 중요하고 종합적인 공간이므로 5·18 민중항쟁과 국가폭력 관련 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광주일보 6월 12일자 3면>

옛 전남도청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월단체가 그 같은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공간인 옛 전남도청을 ACC에서 떼 내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지역 정서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광주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해 세계에 발신한다는 ACC의 설립 취지를 부정할 뿐 아니라 ACC 5개원(민평, 창조원, 정보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가운데 핵심 근거인 민평을 분리한다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 범죄계를 흐드는 발상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가 지역 공약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을 내세우는 마당에 ‘분리’ 운운은 문제부의 민평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5월 단체 중심으로 설립한 법인’을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 운영 특수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5월단체들의 주장 또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옛

전남도청 명칭 변경에 관한 문제로, 문제부는 9가지 명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옛 전남도청 등을 배경으로 쓰여진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한강은 수상자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는’ 그 공간이 옛 전남도청이라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민주평화원’ 의미 되살려야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문제부가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주체 용역을 수행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희승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문제부가 이번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뒤로 빠지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잘못을 했음에도 반성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오월 어머니집과 5·18서울기념사업회도 성명서를 내고 “5·18 상징 옛 전남도청에 다른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명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하이데거는 본질을 도외시 한 채 도구적인 방식으로 언어가 차용되면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그의 시 ‘말’이라는 작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 “말이 부서진 곳에서는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언어는 사물(공간)에 고유성, 본질을 부여하는 최적인 도구다. 달리 말하면 고유성과 본질을 잃으면 공간은 의미를 잃고 만다. 도대체, 누가, 왜, 민평을 분리하고 ‘옛 전남도청’ 명칭을 바꾸려 하는가?

김정은 APEC 초청으로 K실크로드를 열자

이유들 중의 하나는 주식시장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라 대기업의 오퍼러서 주주들은 언제라도 손해볼 수 있는 구조 탓에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불신한다. 두 번째는 배당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는 약 5배의 차이가 나며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남한과 북한은 현재도 정전 상태이다. 풀어 말하면 1950년의 전쟁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을 맞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 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무더져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를 했다가 손식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가 대통령의 바람대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려면 두 가지는 내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북한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라서 시일이 걸리고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이고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해보였으면 좋겠다.

힘내라 KIA 타이거즈

리의 기아 타이거즈다. 밤하늘 호쾌하게 담장을 넘는 야구공에 우리의 한을 실어 보냈기에 더 각별한 애정이 있는 기아 타이거즈다.

KBO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누적 관중이 무려 600만 명을 넘어섰더니 모든 국민이 즐기는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 상황에 민심을 돌리려고 프로야구가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는 속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저러나 TV 매체는 율화가 타지는 것만 보여주니 내 눈길이 찾는 곳은 단연 기아 야구뿐이다.

2024년 우리의 기아 타이거즈는 정규시즌과 가을야구에서 다른 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으로 통합 우승했다. 김도영 선수는 각종 공격 상을 휩쓸면서 시즌 최우수선수가 되었다.

올해 우리의 기아 타이거즈는 부상 병동이다. “너 땀시 살아야!” 새 유행어를 만들었던 김도영을 비롯한 주전급 선수 10여 명이 줄 부상으로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는 불상사에 시달리고 있다. 계속되는 패배로 최강기아의 면모를 상실했으니 팬들의 상심(傷心)은 극에 달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으니 반동의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해대 시절부터 이어온

기아의 색깔은 끈기와 강한 승리욕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기아 응원은 다른 지역 어느 구장이나 응원석을 가득 메운다. 시작하자마자 출전 선수 이름을 노래로 소개하면서 찾는 팬들에게 승리의 기대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소개가 끝나면 파위의 기아! 패기의 기아! 열정의 기아! 승리의 기아 타이거즈여! 응원가가 목청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며 파이팅이란 구호에 가슴이 설렌다. 경기가 시작되면 힘 있는 타자에게는 홈런! 홈런! 외쳐 대다가 장타라도 터질라치면 “기아 없이는 못 살아! 기아 없이는 못 살아!”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개사(改辭)한 응원가로 운동장을 휩쓸어 버린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응원석 열기에 마구 뿌려대는 물대포를 맞으면서 응원하는 관중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 기아 호랑이 선수들이 더위에 지쳐 있다면 초창기처럼 달걀 꾸러미라도 들고 야구장을 찾겠다. 그리고 힘을 다해 ‘힘내라 기아!’를 외치며 야구장에 나가겠다. 이제 ‘기아 없이는 못 살아!’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광주의 함성! 최강기아! 타이거즈! 남행열차 노래를 함께 부르며 승리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광경을 마중하며 박수를 준비하겠다.

社 說

당원주권 시대라지만 모집 경쟁 과열되서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신규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경래 신임 당 대표가 일반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서 권리당원 모집 열풍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당심(黨心)에 힘입어 당선된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기치로 걸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 킷오프’ 경선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설 입후보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모든 출마자에게 경선회회를 보장할 경우 자연스럽게 입후보자가 늘 수밖에 없고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당원 모집이 과열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게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14일까지 당원 신청 원서를 내야 한다.

광주시 인권침해 행정 개선으로 인권감수성 UP

광주시는 얼마 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면서 금액별로 색깔을 구분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인권감수성이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관행에 따라 이전처럼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카드를 그대로 적용했고 행정안전부와 상의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비난을 샀으니 억울할 만도 하다.

이런 비난을 만회라도 하듯 광주시가 행정 전 부문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사례 42건을 추려내 개선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부를 상대로는 광주시에서 확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쿠폰이 계기가 됐지만 인권감수성을 높이려는 광주시의 노력은 사줄만하다.

인권침해 사례는 5가지 유형이었는데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산하 박물관과 공연장 등 일부 공공시설에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그렇지 않아도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 열풍이 불었는데 당심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입후자들의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 과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복 가입과 당비 대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에서 권리당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호남 정지력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 인 면도 있다. 하지만 모집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심해지면 허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모집인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도운 후보가 자치단체장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아 보다 철저한 당원 관리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거주환경권 침해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이슈도 눈길을 끌었다. 수도요금 체납 시 단속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하는 것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관련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는데 소비쿠폰 색깔 논란처럼 무심한 행정 행위가 당사자에게겐 굴욕감을 주는 경우였다.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 입장에선 소비쿠폰 논란이 행정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인권감수성은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무심코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려는 광주시의 노력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응원해줘야 할 일이다. 인권행정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 인권기본권 제정도 건의했더니 잘한 일이다.

無 等 鼓

놀란 감동의 영화 ‘오펜하이머’는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컬리언 머피 분)가 이끌었던 핵 개발 실험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그의 생애, 심리를 다룬 전기적 작품이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한 천재 물리학자의 삶과 그가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를 다룬다. 오펜하이머는 인류를 전쟁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위협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는 별개로 시선을 끄는 것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도시의 모습이다. ‘꼬마(리틀 보이)’라는 별명의 원자폭탄은 1500m 상공에서 섬광을 발하며 낙하해 580m 상공에서 폭발했다. 시가지는 파괴됐고 2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고 참혹했다.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 타 죽은 나무 한 그루뿐이었다. 그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잔디가 마치 구워놓은 것처럼 붉었다. 더 달 것이라고는 없었다. 도시 전체가 지워 없어진 상태였다.’ 원자폭탄 투하 다음

날 피해 상황 보고를 위해 히로시마를 공중 시찰한 한 일본군 장성은 이렇게 탄식했다. 요즘 80년 전 원자폭탄 투하의 악몽을 떠올리 게 할 정도로 폭염과 폭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공포가 된 ‘극한호우’의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기후위기와 대응을 수 없다. 보통 기온이 1도 높아질수록 공기가 머금은 습기가 7% 늘어난다고 한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가뭄을, 다른 지역에는 물폭탄을 불러오고 있다.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는 도심 골목은 전정터를 방불케 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였고, 붉은 펄프 호스는 곳곳에 뻗어 흙탕물을 퍼내는 중이었다. 쪼든 가구와 살림살이는 인도와 차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527.2mm 폭우가 쏟아진 광주시 북구 신안동 수해 현장을 다룬 브로 일부터. 시대와 상황은 변했지만 원자폭탄이건 물폭탄이든 인류의 판단 착오와 욕심이 부른 재앙이라는 점은 같다. 참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김대성 전남 시·중부 전북 취재부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지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율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